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 실태분석 : 2014~2015년도

문소라¹ · 김명철^{1*} · 이준철²

¹울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²대구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Analysis on Continuing Education in Physical Therapy : In 2014~2015

Moon Sora, PT, MS¹ · Kim Myungchul, PT, Ph.D^{1*} · Lee Juncheol, PT²

¹Dept. of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²Dept. of Physical Therapy, Daegu University

Abstract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employment status of these physical therapists. Moreover, the study also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in various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 quality of physical therapists, thereby providing high quality service to patients and contributing to the increasing productivity of hospitals.

Method :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basic data obtained from KPTA regarding the 671 physical therapists throughout Korea. Questionnaires were sent by mail to from direct visits were used in the final data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5 questions in 3 categorie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ing educati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Result : Subjects 88 (87.1%) indicated that they continuing education, showing that most had taken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ntinuing education was much higher for those with doctoral degrees than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college, or who possessed bachelors or master's degrees.

Conclusion : A necessary follow-up study using 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 to providing a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an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physical therapists. Moreover, systematic management of continuing education is necessary to devis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updated skills by health care professionals.

Key Words : physical therapy, continuing education, examine the status

✉교신저자 :

김명철 ptkmc@eulji.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별, 연령별 인력 현황 등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안경사 및 의무기록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1년 11월 2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4년 11월 23일 부터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에서는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22조(자격의 정지)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Cooper(1972)는 보수교육이란 ‘자격증 취득함과 동시에 교육의 종료’라는 인식을 버리고 ‘계속적 교육 형태’인 보수교육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습과 교육활동을 말하며,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업에 관한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 등을 향상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포괄적인 교육이라고 하였다.

보수교육은 첫째, 변화하고 더욱 발전하는 사회에서 그 발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 응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둘째, 학교 교육의 기능 저하로 획일적으로 융통성이 없는 지식위주의 교육이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상황에 빨리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의 위기를 줄이기 위해 요구되며 셋째, 사회적 교육의 확대로 일부 연령층으로 국한되어 있는 학교 교육, 조직화되지 못한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을 효율화함을 통해 교육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하승희, 2002).

의사와 같은 의료인의 경우 주로 새로운 지식 습득과

배움을 위해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의 경우 주로 자격증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지민, 2012). Peden 등(1990)은 보수교육은 능력을 전문화시키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육이며, 개인과 전문직업인은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서만이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발전에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주제는 현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에 갖는 애정, 애착 또는 긍정적인 태도는 직무만족이나 조직애착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보수교육 참여자의 현 직무와 직무능력과의 관련성 그리고 직업적 자긍심의 고취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정재연, 201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과 관련된 실태 및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실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면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질 향상과 환자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병원에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 개선 방안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와 조사도구

본 연구는 2014~2015년도 전국 671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분석을 위한 인원은 G-power 3.1을 이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최소 모집단 수 134명으로 산출되었다. 671명의 면제자 중에서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137명을 제외한 534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136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보수교육 수강여부, 보수교육 현황 총 3개 영역으로 대상자의 개인적인 배경과 보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임상 실무와의 연관성, 전문성, 그 밖에 제반사항 등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자문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 4명, 물리치료학과 교수 3명, 병원 실장급 종사자 4명에게 도움을 받았다.

2. 자료수집 절차와 처리방법

전국의 물리치료사 671명의 기본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으며, 설문지는 534명에게 우편 발송하여 배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총 2번에 나눠져 이루어졌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0부, 2015년 10월 3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384부, 총 53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설문지에는 통계법과 개인정보 활용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설문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반송되어온 설문지와 수거된 설문지 총 148부 중에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중으로 답변하는 등, 기록이 미비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136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25%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와 보수교육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학력과 보수교육 긍정도, 필요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제곱 분석을 이용하였다. 평균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값을 나타내었으며 매우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불만족은 2점, 매우불만족은 1점으로 척도점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의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연령은 20세 이상부터 29세가 25명, 30세 이상부터 39세가 55명, 40세 이상부터 49세가 46명, 50세 이상의 연구대상자는 10명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유무는 기혼이 84명, 미혼이 51명, 기타(이혼, 사별 등)가 1명으로 기혼자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 연구 대상자의 학력과 면허번호

연구 대상자들의 학력은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48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38명, 석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19명, 박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이 3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허번호는 10000번 미만의 경우가 34명, 10000번 이상부터 20000번 미만인 경우가 23명, 20000번 이상부터 30000번 미만인 경우가 38명, 30000번 이상부터 40000번 미만인 경우가 19명, 40000번 이상인 경우가 22명으로 조사되었다(표 2).

2. 보수교육 현황

1) 보수교육 수강 경험

연구 대상자 중 보수교육을 들어본 적 있는 대상자는 118명, 들어본 적 없는 대상자는 18명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수강한 적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3).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누적 %
성별	남	70	51.5	51.5
	여	66	48.5	100.0
연령	20~29세	25	18.4	18.4
	30~39세	55	40.4	58.8
	40~49세	46	33.8	92.6
	50세 이상	10	7.4	100.0
결혼유무	기혼	84	61.8	61.8
	미혼	51	37.5	99.3
	기타	1	0.7	100.0
합계		136	100.0	

표 2. 연구 대상자의 학력과 면허번호

변수	구분	빈도	%	누적 %
학력	전문대졸	48	35.3	35.3
	대졸	38	27.9	63.2
	석사	19	14.0	77.2
	박사	31	22.8	100.0
면허번호	10000미만	34	25.0	25.0
	10000이상~20000미만	23	16.9	41.9
	20000이상~30000미만	38	27.9	69.9
	30000이상~40000미만	19	14.0	83.8
	40000이상	22	16.2	100.0
합계		136	100.0	

표 3. 보수교육 수강 경험

변수	구분	빈도	%	누적 %
보수교육 수강 경험	있다	118	86.8	86.8
	없다	18	13.2	100.0
합계		136	100.0	

2) 보수교육 현황

보수교육 수강 여부 중 ‘있다’라고 응답을 한 대상자 중에서 118명에게 보수교육의 만족도와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수교육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은 대상자는 61.1%인 반면에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의 빈도가 낮았다. 특히 보수교육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과 강사선정이 적절했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1명이었으며,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도 보수교육의 중요도와 필요도는 높은 반면 임상실무에 도움이 된다, 참

가비가 적절하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평균 점수가 낮았다(표 4).

3. 대상자와 보수교육간의 연관성

1) 학력과 보수교육의 중요도와의 연관성

학력 간의 차이점은 전문대를 졸업한 대상자가 보수교육이 중요하다 16명, 보통이다 14명의 응답률을 보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는 보통이다 13명, 석사는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에 각각 5명과 6명으로 응답하여 매

우 중요하다 23명으로 조사된 박사 졸업 대상자에 비해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표 5).

2) 학력과 보수교육의 필요도와의 연관성

학력에 따른 보수교육 필요도는 전문대졸에서 필요하다 25명, 보통이다 11명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대

졸에서는 필요하다 15명, 석사에서는 필요하다 6명으로 주로 필요하다는 응답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지만 박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20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력이 따른 보수교육 중요도와의 결과와 유사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교육 필요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표 6).

표 4. 보수교육 현황

변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균
중요도	37(31.4%)	35(29.7%)	29(24.6%)	16(13.6%)	1(0.8%)	3.77
필요도	29(24.6%)	57(48.3%)	18(15.3%)	10(8.5%)	4(3.4%)	3.82
목적제시	5(4.2%)	35(29.7%)	53(44.9%)	18(15.3%)	7(5.9%)	3.11
직업적 자긍심	6(5.1%)	21(17.8%)	62(52.5%)	22(18.6%)	7(5.9%)	2.97
인간관계 유지	5(4.2%)	50(42.4%)	35(29.7%)	16(13.6%)	12(10.2%)	3.18
새로운 지식 정보	1(0.8%)	35(29.7%)	52(44.1%)	24(20.3%)	6(5.1%)	3.01
임상 실무에 도움	7(5.9%)	17(14.4%)	47(39.8%)	38(32.2%)	9(7.6%)	2.79
전문성확보 도움	5(4.2%)	31(26.3%)	45(38.1%)	27(22.9%)	10(8.5%)	2.95
교육방법	6(5.1%)	23(19.5%)	62(52.5%)	21(17.8%)	6(5.1%)	3.02
보수교육 내용	2(1.7%)	25(21.2%)	63(53.4%)	25(21.2%)	3(2.5%)	2.94
실시장소 시설	6(5.1%)	40(33.9%)	53(44.9%)	15(12.7%)	4(3.4%)	3.25
인원수	2(1.7%)	32(27.1%)	59(50.0%)	17(14.4%)	8(6.8%)	2.70
운영방식	6(5.1%)	30(25.4%)	52(44.1%)	21(17.8%)	9(7.6%)	3.03
교육 횟수	3(2.5%)	33(28.0%)	52(44.1%)	22(18.6%)	8(6.8%)	3.01
참가비	3(2.5%)	28(23.7%)	42(35.6%)	33(28.0%)	12(10.2%)	2.81
강사선정	1(0.8%)	25(21.2%)	65(55.1%)	19(16.1%)	8(6.8%)	2.93
홍보	2(1.7%)	39(33.1%)	37(31.4%)	35(29.7%)	5(4.2%)	2.98
합계						118

표 5. 학력과 보수교육의 중요도와의 연관성

구분	보수교육 중요도						합계	x ² (p)
	모른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전문대졸	4 8.3%	5 10.4%	16 33.3%	14 29.2%	8 16.7%	1 2.1%	48 100%	
대졸	8 21.1%	4 10.5%	6 15.8%	13 34.2%	7 18.4%	0 0%	38 100%	
학력 석사	4 21.1%	5 26.3%	6 31.6%	3 15.8%	1 5.3%	0 0%	19 100%	62.458 (.000*)
박사	0 0%	23 74.2%	7 22.6%	1 3.2%	0 0%	0 0%	31 100%	
합계	16 11.6%	37 27.2%	35 25.7%	31 22.8%	16 11.8%	1 0.7%	136 100%	

* p<.05

표 6. 학력과 보수교육의 필요도와의 연관성

구분	보수교육 필요도						합계	x ² (p)
	모른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전문대졸	4 8.3%	2 4.2%	25 52.1%	11 22.9%	5 10.4%	1 2.1%	48 100%	
대졸	8 21.1%	3 7.9%	15 39.5%	5 13.2%	4 10.5%	3 7.9%	38 100%	
학력	4 21.1%	4 21.1%	6 35.3%	4 21.1%	1 5.3%	0 0%	19 100%	62.926 (.000*)
	박사	0 0%	20 64.5%	11 35.3%	0 0%	0 0%	31 100%	
합계	16 11.8%	29 21.3%	57 41.9%	20 14.7%	10 7.4%	4 2.9%	136 100%	

* p<.05

IV. 고 찰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만성퇴행성 환자가 매우 빠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리치료와 재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의료전문직종의 하나인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의 폭도 점차 넓어지면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재활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서비스 제공능력이 환자의 사회생활 복귀에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이석민과 최만규, 2003). 물리치료사가 본인의 업무와 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발전된 방향으로 근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그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한다. 물리치료사가 본인의 역할과 직무에 관하여 지식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면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발전과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최만규과 이석민, 2000).

Eisenberg(1986)은 보건의료 제공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의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결정 되며,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보건의료인의 지식 증가와 행동 변화가 필요하고 하였다. 보수교육은 전문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교육을 끝낸 후에 전문기관에 의해 준비된 학습과 훈련으로, 업무와 관련된 이론이나 정보 및 기술 내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화 된 직종일수록 그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일반 교육을 마치고 업무를 행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로 보수교육이 제공된다. 이는 보수교육을 실행하면서 보수교육 수강자의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정지웅, 1983).

보수교육을 수강한 적 있는 118명에 대한 현황을 살펴 보면 대상자들이 보수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반면에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 임상 실무에 도움이나 그 밖에 시설, 인원, 운영 방식, 참가비, 강사 등과 같은 내용에서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 더 많았다.

보수교육 수강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제 선정과 함께 적절한 강사 선택과 교육 방법은 보수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주제에 맞는 전문 강사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를 강사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순주, 2001; 안세연, 2005; 이해진, 2010). 이목상(2009)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내용, 강사능력, 보수교육 준비사항은 운영 및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김진호(2003)은 학습 진행방법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보수교육은 그 내용과 강의 주제 뿐 아니라 운영이나 강의 장소, 인원 에 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보수교육에서 학습 환경의 요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잘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선택된 강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의 규모나 자리의 안락함, 책상 구도, 강의실 주위의 소음, 마이크 상태 등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Wise, 1987)와 학습자가 물리적 환경과 강의를 듣는 곳의 조명, 소음수준, 온도에 예민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및 설계 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Russell, 2006)와도 일치하였다.

그리고 보수교육에는 실질적인 시간, 장소, 인원, 강사 등 실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홍보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부족이 보수교육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한 연구(Alexander 등, 2002)를 고려할 때,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채용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이에 근거한 보수교육 개발 및 운영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 비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 의무 인식이 부족해 보수교육의 이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이는 의료가사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므로 보수교육 이수 의무에 대한 관리 및 홍보가 필요하다(신제원, 2009).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과 관련지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보수교육은 평생 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의 개념 하에 교육 등을 받고 있으나, 현재 보수교육의 개념이 아닌 유럽과 호주, 미국 캐나다의 평생 직업 전문 교육(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의 개념을 받아들여 임상교육, 전문성 확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협력기술, 의료 윤리 등 넓은 범위의 학습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실제적으로 보수교육 참가를 독려하고 참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보수교육 참가비

용의 개선을 제안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수강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고용보건의료인이 피고용 보건의료인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보수교육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대상자의 현황과 실태,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국 671명의 물리치료사 중에서 무작위 추출한 14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136부가 사용되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136명의 대상자 중에서 보수교육을 수강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18명이었고 수강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8명이었다. 보수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보수교육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그에 비해 새로운 지식 정보는 얻거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보수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교육횟수, 참가비, 강사와 같은 부수적인 내용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많았다. 따라서 보수교육의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한 변화와 개발 역시 필요하다.

학력과 보수교육의 중요도와 필요도와의 연관성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김명철(2015). CPD(평생전문직업교육) 중심의 보수교육 개선방안. 대한의료기사단체 협의회 정책 토론회.
- 김진호(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지민(2012). 의료 종사자의 직종별 의료 보수교육에 대

한 인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순주(2001).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신제원(2009). 치과의사 보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7(12), 790-796.

안세연(2005).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2013). 의료계 보수교육 실태 평가 연구 보고서.

이목상(2009). 국방직무교육이 업무수행결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석민, 최만규(2003).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직무 특성과 이직의도와의 관련성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학회지, 10(2), 145-152.

이해진(2010). 사회복지사의 재교육이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재연(2014). 치과위생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지웅(1983). 사회교육의 내용. 서울교육 심포지움.

최만규, 이석민(2000). 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직장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7(2), 503-512.

하승희(2002). 전문비서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lexander GR, Chadwick C, Slay M, et al(2002). Maternal and child health graduate and continuing education needs: A national assessment. Maternal Child Health J, 6(3), 141-149.

Cooper SS(1972). I believe that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Nurs Outlook, 20(9) 579-583.

Eisenberg JM(1986). Doctor's decisions and the cost of medical care: the reasons for doctors' practice and ways to change them. Ann Arbor, MI, Health Administration Press.

Peden AR, Rose H, Smith M(1990). Transfer of continuing education to practice: testing an evaluation model. J Conting Educ Nurs, 21(2), 68-72.

Russell SS(2006). An overview of adult-learning processes. Urol Nurs, 26(5), 349-352.

Wise PS(1987). Environmental management: Creating a learning ambiance. J Contin Educ Nurs, 18(1), 29-30.